

의료계에 부는 명의(名醫) 바람

이재열 / 한겨레 신문 생활환경부 기자

최 근 의료계에서는 명의(名醫)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바람은 의사집단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다.

최근 들어 의술이 뛰어나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의사들을 소개하는 각종 의학 서적들이 잇달아 출간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현대의 난치병 치료 전문의들과 각 분야별 유명의사 등을 다룬 이 책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어느 병에는 어느 의사가 최고더라는 얘기들이 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자주 등장한 덕분에 스타대접을 받게 된 일부 의사들은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의사 개인만 서열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일부 시사주간지에서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주요 성인병을 잘 치료하는 병원들의 순위를 발표하면서 대형병원의 서열까지도 매겨지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적

지 않게 미친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선 명의 선정과 병원의 서열매김이 의료 수요자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의 가장 큰 소망은 자신의 병을 어느 의사가 가장 잘 치료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의 무신경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 병원이 치료를 잘 하는지, 어느 병에는 어떤 의사를 찾아야 할지 등에 대한 정보부재는 환자들을 가장 답답하게 만든 부분이었다.

명의 관련서적들이 지금 당장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자신뿐 아니라 언제 아플지 모르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이처럼 오랜 불만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그 동안 환자 위에 군림해 온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이들 서적들이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 관련정보에 쉽게 접근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병원과 환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우선 명의를 다룰 경우 반드시 특정 의사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의사 사이에 위화감과 갈등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특히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여러 명 있는 대학병원이나 초대형병원 내부에서 미묘한 갈등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병원들은 각 분야별로 팀웍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한 의사 사이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자들의 태도이다.

어느 책에서도 '명의'에 들지 못한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이런 책에서 얻은 정보로 환자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누구누구인지를 알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치료를 맡은 의사가 세칭 명의냐 아니냐에 따라 진료받는 태도가 영관 다르고 의술에 대해 의심하는 일까지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의사들은 명의란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 과연 명의인지를 가리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느냐며 항변하기도 한다.

어떤 의사는 오늘날의 마스크 사회에서 유명한 의사들이란 뛰어난 의술을 객

관적으로 평가받은 의사라기보다는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거나 업적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병원에 대한 서열매김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런 작업의 의도가 각 병원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는 해도 과연 의료진에 대한 질적 평가나 환자 만족도와 같이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항목들만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쨌든 최근 일고 있는 명의 바람이 환자들의 정보욕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한 현상이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들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각 병원과 의사들도 앞으로 의료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명의란 최신의 전문적인 의술을 가진 의사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아파하며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라는 점이다.

의술도 뛰어나고 환자들에게 인술을 퍼는 의사들이 공정한 검증과정을 통해 명의로 대접받고 의사들도 진정한 명의가 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펴는 때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卍